

현대 패션에 표현된 중세 종교복 이미지의 조형성 연구

강림아[†] · 이효진^{*}

전북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의류전공 박사과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Formativeness of Image of Medieval Religious Costume in the Modern Fashion

Rim A Kang[†] and Hyo Jin Lee^{*}

Major in Clothing & Textiles, 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3. 5. 20. 접수 : 2003. 9. 1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dieval culture and medieval religious costume by analysing and grasp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image of medieval religious costume in the modern fashion that were represented to the modern fashion, and also to offer materials to predict the history of fashion in the future by considering the progress of modern fashion and recognizing the fashion to be progress. To examine the image of medieval religious costume in the modern fashion, this thesis divided it into avant-garde image, symbolic image, and mysterious image. The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avant-garde image, the harmony between characteristic eroticism and heterogeneous materials are expressed and the formative change of religious costume into general costume are expressed. Second, in symbolic image,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medieval clergy man's costume i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while its religious meanings and senses are expressed with symbolic image. Third, in mysterious image, the abundant and profound lights and colors express the mysterious senses of the costume and sanctity applied with mosaic painting and stained glass techniques, utilizing the splendor jewelry, spangle and materials, and most of its image reflects exotic and embellish tendency. As a result, this thesis could be described as follows; Previous religious costume of clergy man was used as a mediator between general devotee and God in ceremony, and it was worn by the general devotee to express devotion. This religious costume was utilized in modern fashion, and it gave the avant-garde image and symbolic image of religion. In addition to it, mysterious image was expressed with exotic and embellish tendency.

Key words: avant-garde image(전위적 이미지), Medieval Religious Costume(중세 종교복), mysterious image(신비적 이미지), symbolic image(상징적 이미지).

I. 서론

21세기를 시작한 현 시점의 사회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이 공존하고 테러와 전쟁 등의 상황은 사람들의 관심을 종교와 자연으로

[†] 교신저자 E-mail : pwra@hanmir.com

돌리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는 대중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서 이를 주제로 한 작품이 등장하였으며 이런 경향은 패션계에도 확산되어 있고, 그 중 화려함과 우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중세(Middle Ages)에서 영감을 찾아 패션작품으로 표출하고 있다.

디자이너 파코 라반(Paco Rabanne)은 중세 의복에 금속과 종이, 플라스틱 등 특유의 신소재를 도입해 표현함으로써 미래파 디자이너로 불려지고 있으며,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역시 중세의 의복을 응용하여 현대적 이미지로 재해석하였다¹⁾.

이러한 양상은 국내 패션계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2001/2002 F/W 서울 컬렉션」에서는 자연주의와 복고적인 패션이 주종을 이루었다. 디자이너 문영자는 장식적인 고급스러움을 '도시적인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표현하였으며, 변지유는 중세의 새련된 문양을 이용해 '여유 있는 미래'의 이미지를 선보였다²⁾.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중세 이미지의 복식 중 종교복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파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중세 문화와 중세 종교복을 이해하여 현대 패션의 흐름을 고찰하고, 앞으로 진행될 패션 경향을 인식하여 미래 복식사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새 천년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테러와 전쟁 등의 상황으로 종교와 자연이 주된 관심사가 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를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패션에 관계된 석·박사 논문과 국내·외 서적과 패션전문지 등의 간행물과 사진자료, 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한 문헌 연구 방법에 의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II. 중세의 문화적 배경과 종교복에 관한 고찰

현대 패션에 표현된 중세 종교복의 내적 조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세의 문화적 배경과 종교복에 대해 고찰하였다.

1. 문화적 배경

1) 역사적 배경

중세라는 용어는 17세기 유럽인들이 고전 그리스와 로마의 영광된 시대와 자신들의 근대 사이에 놓여있는 암흑과 야만의 중간시대란 뜻으로 사용되면서, 그 이래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13세기까지 약 천년을 가리키는 것이다³⁾.

중세의 역사는 그 시작과 종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30년 로마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Constantinus I)의 비잔티움(Byzantium)의 천도를 계기로 395년 동로마와 서로마로 제국이 완전히 분리됨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⁴⁾.

중세를 사회 발전의 추이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면 초기(Heracleios 1세 재위기간, 610-641), 중기(Basileios 1세 재위기간, 976-1025), 후기(멸망까지, 1026-1453)로 구분됨이 중론(衆論)으로 인정되고 있다⁵⁾.

중세 초기는 민족이동의 시기로 카톨릭 교회들 매개로 한 고대의 로마적 문화전통은 게르만적 요소와 결합되어 하나의 문명권으로서의 성격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민족적 기반이 구축되어 후세의 각 민족 국가간의 지리적 경계가 이때 결정되었으며⁶⁾ 카톨릭 교회는 독특한 역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유럽문명의 주류인 그리스도교 문화의 기초를 확립하였다⁷⁾.

중세의 안정기에 속하는 중기에는 그리스도교 문

1) 김미랑, "장 폴 고티에 영화의상에 나타난 양면가치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28.

2) "미리 보는 서울 컬렉션," Tex Herald Online(2001년 4월 2일[2003년 3월 4일 검색]); <http://www.fashionn.com/News>

3) E. M. 번즈·R. 러너·S 미첨, *서양문명의 역사II*, 박상의 역 (서울: 소나무, 1994), p. 288.

4) 이정옥, 최영욱, 최경순, *신고 서양부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4), p. 104.

5) 조규호, *세계문화사* (서울: 박영사, 1985), pp. 136-137.

6) 차하순, *서양사총론* (서울: 탐구당, 1983), p. 137.

7) 최영욱, "중세 서양 문장과 문장복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 18.

화가 보편적으로 발전하면서 봉건제도 및 기사도가 전형적으로 발달하였다. 봉건국가와 더불어 교황권의 기초가 확고히 다져졌고 11세기말 성지회복과 그리스도교 세계의 재합일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으며 문화적으로는 스콜라 철학(Scholar)⁸⁾이 완성되었고 고딕(Gothic)예술이 그 절정에 달하였다. 또한, 옛 로마제국을 대신하여 카톨릭 교회가 서방의 통일 세계를 영도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리스도교 문화가 교육, 학문, 사상,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특성을 발휘하였다⁹⁾.

중세 후기는 중세 특징이 변질되는 과도기로서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봉건제도와 농촌경제에 변화가 오고 근대국가가 성장하였으며 도시민의 사회적 세력이 증대하였다. 그리스, 로마의 고전문화가 재생됨에 따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짝트게 되었다.

한편, 보편적인 통일체를 자처한 카톨릭 교회가 해이되어 절대적 우월성을 상실하였고 세속의 군주권이 증대해 감에 따라 정치는 강력한 교회의 영향권을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생겨났다¹⁰⁾.

이와 같이 중세 유럽의 역사는 초기·중기·후기 세 시기로 구분되어 발전하였으며 그리스도교 문화가 교육, 학문, 사상,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특성을 발휘하였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봉건제도와 농촌경제가 변화되었고 근대국가가 성장하였으며 서로 접촉하고 융합되어 하나의 통일적인 유럽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종교적 배경

중세의 문명은 봉건적 중세문명 이외에 두 가지의 다른 문명들을 포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비잔

틴 문명(Byzantine civilization)과 이슬람이라는 사라센 문명(Saracenic civilization)이었다. 사라센인들은 이슬람교에 속하고 비잔틴인들은 기독교에 속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에서 종교는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고 종교적 조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정부도 신정적(神政的)이었다¹¹⁾.

이렇듯 중세의 문명은 종교와 함께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세계관의 형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중세 초기 이슬람 문화의 전파와 함께 성장한 이슬람교와 국교로 지정된 그리스도교에 대해 고찰하였다.

(1)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570년경 아라비아 메카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632년에 사망한 예언자 마호메트(Mohammed)가 알라(Allah)의 계시를 받아 형성한 종교¹²⁾이며, 이슬람교의 핵심은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아 집대성한 코란(Quran)으로서, 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은 코란의 해석에서 파생되었다¹³⁾.

마호메트는 메카의 히라산(Mount Hira)에 있는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610년, 40살 무렵 최초의 계시를 받았다. 처음에는 유일신 알라의 계시인지를 믿을 수 없어 고뇌하였는데, 곧 예언자임을 자각(自覺)하여 설교를 시작했다. 천지의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중지하고 알라에게 귀의하여, 다름과 부정을 그만두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도우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메카(Mecca)¹⁴⁾사람들은 마호메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와 소수의 신도들을 박해하여, 622년 마호메트는 신도들과 함께 메카를 버리고 포교의 활로(活路)를 찾아 야스리브로 옮겨갔다. 이것을 헤지라(Hegira; 聖遷)라고 한다. 메디나(Medina)¹⁵⁾

8)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철학.

9) 차하순, *Op. cit.*, p. 137.

10) *Ibid.*, p. 137.

11) 임희완, *서양사의 이해* (서울: 박영사, 1999) p. 120.

12) 한국종교연구회, *세계종교사입문* (서울: 청년사, 1991) p. 591.

13) 김진용, 손영호, 정성화, *Op. cit.*, p. 116.

14) 사우디아라비아 헤자즈 지방에 있는 도시. 아랍어로는 마카(Makkah)라고 한다. 이슬람교의 교조 마호메트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으며, 종교·행정·상업의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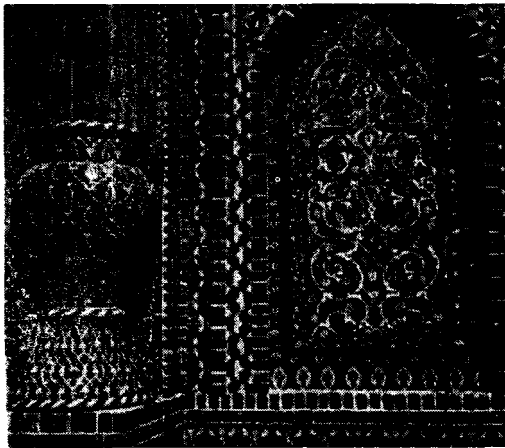
15) 사우디아라비아 헤자즈 지방에 있는 내륙도시로 아랍어로는 알마디나(al-Madnah)라고 한다. 이슬람교 성지이며, 메카 북쪽 약 340km 지점, 와디합두강 상류의 오아시스 지역에 있다. 원래 야스리브(Yathrib)라 불리는 유대인촌락이었으나, 5세기 말에 아랍인이 정착하였고, 622년 마호메트가 메카로부터 이 곳으로 이주(헤지라)한 후 이슬람의 정치·교단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메디나'라는 이름은 본래 '예언자의 도시'라는 말의 준말이다.

에서 마호메트는 대다수의 메디나주민과 메카에서 이주한 신도들의 지지를 얻어, 이슬람 신앙을 실천하는 독자적 공동체인 움마(Ummah)¹⁶⁾를 만들었다¹⁷⁾.

630년에는 종교지도자·정치가로서 메디나에 살던 유대교도를 몰아내고 주변의 아랍 여러 부족들을 교화하여 배카를 정복하였다. 632년 마호메트가 죽을 때에는 아라비아반도의 거의 전지역이 이슬람교로 통일되었다¹⁸⁾.

이렇게 마호메트는 예언자로서 신의 계시를 전하고, 신의 계시를 성전으로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로서 그 가르침을 공동체 안에 심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이슬람교는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인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그들 특유의 페르시아 문화를 기초로 그 주변 문화를 흡수하면서 이슬람교와 아라비아적 창의성을 더하여 이루어진 우수한 문화로 유럽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리하여 이슬람교는 게르만 민족에 의해 파괴된 문화적 공백기



<그림 1> 사원의 내부(아프카니스탄)

를 메우고 유럽 고대와 근대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구실을 하였고 르네상스에도 영향을 주었다¹⁹⁾.

이슬람교 문화 중에서 특히 높이 평가받는 분야는 과학이며, 이외에도 철학, 문학, 미술, 음악 등에서도 훌륭한 유산을 남겼다.

또한 이슬람교 미술은 페르시아·시리아·이집트·로마 등의 요소를 받아들였고, 그 양식을 통일시킨 기본요소는 이슬람교의 종교 사상이라 할 수 있다²⁰⁾. 이슬람교 미술은 이슬람교가 우상숭배를 엄금했기 때문에 그림이나 조각은 발달하지 못하였고 사원건축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중세 건축물의 특징인 돔(dome)은 역학적 계산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건축물의 안팎을 장식하는 도안으로서 사용된 아랍문자나 화초, 기하학문양 등으로 꾸민 이른바 아라베스크(arabesque)무늬²¹⁾가 발달하였다²²⁾(그림 1, 그림 2).

이와 같이 이슬람교는 예언자 마호메트(Mohammed)가 알라(Allah)의 계시를 받아 형성한 종교이며, 이슬람교의 핵심은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아 집대성한 코란으로서, 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은 코란의 해석으로 파생되었다. 또한 이슬람교는 그리



<그림 2> 바디샤히 사원(라호르) (이슬람 Islam, p.vi)

16) 이슬람 공동체를 뜻한다. <코란>에서는 처음에 알라신(神)이 인류 구제의 역사 속에서 사도(예언자)를 보내어, 알라의 말을 전하게 한 단위집단이란 뜻으로 쓰였으나, 나중에는 오로지 마호메트의 움마, 즉 이슬람 공동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17) 박양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9), pp. 60-61.

18) "이슬람교 개론"(2003년 3월[2003년 3월 20일 검색]), <http://iresys.pe.kr/seven/belive/b018.htm>

19) 김진웅, 손영호, 정성화, *Op. cit.*, p. 116.

20) 차하순, *Op. cit.*, p. 153.

21) '아라비아 풍'이라는 뜻으로 '당초 문양'이라고 한다. 로마 시대의 건물이나 회교 사원인 모스크에 많이 쓰인다. 식물의 줄기, 꽃, 덩굴 등을 복잡하고 섬세하게 얽히게 하여 좌우 균형을 유지하면서 무한하게 전개하는 문양이다.

22) 민석홍, 라종일, *서양문화사*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88), p. 104

스·로마의 고전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그들 특유의 문화적 가치를 더하여 중세 사회를 창출하였으며 경제 분야와 과학분야, 예술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찬란한 유산을 창조하여 중세 유럽문화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2) 그리스도교

예수의 12제자 중의 하나인 베드로에 의해 주관된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로마정부 쌍방으로부터 황제 숭배 거부, 비밀집회 등의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그러나 신도의 수는 계속 늘어나 개인의 집이나 카타콤(Catacomb)²³⁾ 같은 곳에서 비밀집회를 가지며 그 조직을 갖추어 나가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였고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1세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전까지 박해자였던 황제는 그리스도교의 보호자로 그 역할이 바뀌었고 더 나아가 교회의 모든 문제, 교리문제까지도 최종 결정권한을 황제가 수행하게 되었다²⁴⁾.

한편, 5세기에 이르러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였고 야만 민족들이 로마제국을 정복함으로써 극도의 혼란에 빠진 로마에서는 암흑과 혼란의 시기를 거치었다. 이러한 가운데 게르만 민족 중 큰 세력을 형성한 프랑크족(Franks)은 이미 5세기에 로마 카톨릭교회로 개종하였고 교회와 제휴하여 그 지배력을 확립하게 되었다²⁵⁾.

이와 같이 교권이 강해짐에 따라 한편으로 그리스도교의 부패와 세속화도 심화되었으며 교황은 교황령의 지배자로서 또 주교나 수도원장은 영주로서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여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었다²⁶⁾.

이러한 가운데 동서 양쪽에서 세력을 확보해 가던 유럽의 그리스도교는 로마 중심의 라틴파와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 중심의 그리니스파로 갈라지는 경향이 나타나 1054년에는 마침내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로마교회와 갈라져 그리스 정교회²⁷⁾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에 로마 카톨릭교는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교회의 영토는 거의 서유럽의 전 영토의 1/4을 차지하였으며 교황권의 우위는 절정기에 이르러 마침내 봉건주의²⁸⁾적 영주의 호응을 얻어 십자군 원정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원정은 처음에는 이슬람교 세력에 대항하는 종교적 열정에서 시작되었으나 차츰 세속적인 목적으로 변질되어 교황권과 함께 수도원도 부유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격상되었다²⁹⁾.

이와 같이 교회가 부와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은 근대 초기의 종교개혁을 불러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배한 중세 시대를 종식시키고 근대의 문을 열게 하였다³⁰⁾.

유럽인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중세 유럽인들의 신앙생활만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까지 침투하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생활을 관장하였다.

그리스도교의 영향은 학문과 예술 등 중세 유럽인들의 지적·문화적 활동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신학이 모든 학문의 으뜸이 되었으며 철학은 신학을 위한 학문이었다³¹⁾.

또한, 중세 그리스도교의 이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23) 초기 그리스도교도의 박해 피난처인 지하 묘굴.

24) 요트 마르크스, *카톨릭 교회사* (상), 김창수 역(서울: 카톨릭출판사, 1981), p. 98.

25) A. M. 렌 위크, *세계 그리스도교 교회사*, 오만규 역(서울: 보이서사, 1979) p. 113.

26) 요트 마르크스, *Op. cit.*, p. 100.

27) 그리스정교회(Greek Orthodox Church)는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를 수장(首長)으로 하여 정통적인 그리스도교회임을 자처하는 여러 교회의 일종이다. 그리스도교는 대체로 카톨릭교회(구교)·그리스정교회·프로테스탄트교회(신교)로 나뉜다. 그리스정교회는 동방교회(東方教會; Ecclesia Orientali)라고도 하며, 처음엔 로마교황을 수장으로 했으나, 지나친 국가주의·민족주의 등의 원인으로 교리의 차이가 생겨 로마교회에서 분리되었다.

28) 노예제의 붕괴 후에 성립되어 자본주의에 앞서서 존재하였던 영주(領主)와 농노(農奴) 사이의 지배·예속관계가 기초를 이룬 생산체제를 말한다.

29) 박형관, 최제우, *세계문화사* (서울: 학문사, 1983), p. 191.

30) 차하순, *Op. cit.*, p. 172.

31) 자크 르 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p.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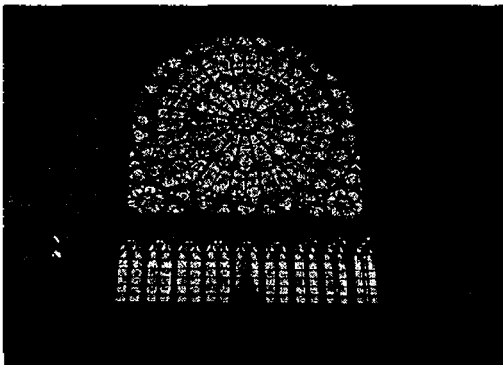
표현된 분야는 건축, 조각, 회화 등의 미술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교회와 수도원 등의 교회건축은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의 중심을 이루었다.

전능의 그리스도와 신·구약 성서의 여러 장면들을 나타낸 모자이크(mosaic)화와 프레스코(fresco) 벽화는 찬란한 빛을 발하며 교회내의 벽면을 장식하고 강하고 다채로운 색채는 신비롭고 장엄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³²⁾(그림 3).

처음에는 비잔틴 건축이 모방되었으나, 두껍고 육중한 담을 쌓아 장중한 느낌을 주고 로마식 아치(arch)와 수평을 강조³³⁾한 장중한 로마네스크(Romanesque) 양식이 일어났다. 또한, 수평선보다는 수직선을 강조한 고딕 양식은 벽에 수많은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³⁴⁾ 창을 놓음으로써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었고 하늘 높이 솟은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이것은 천국을 향한 중세 유럽인들의 염원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그림 4〉는 1163년 건축이 시작되어 13세기 중엽에 완성된 파리 사르트르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고딕양식을 대표하는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국교로 인정된 그리스도교는 지배력을 형성하였고 생활과 문화, 그리고 학문과 예술 등 중세



〈그림 3〉 노트르담 대성당 장미창
(<http://www.encyber.com/bigimage/47/58947.jpg>)

유럽인들의 지적·문화적 활동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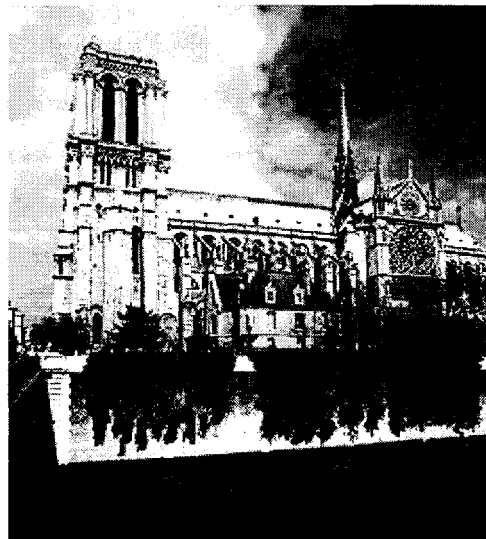
2. 중세 종교복의 특징

1) 이슬람교

아라비아 사막에서 생겨난 이슬람교의 종교복식과 그 특징은 아라비아 복식에서 알아볼 수 있다.

아라비아는 아시아 대륙 남서부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북쪽은 사막지대로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의 사하라로 이어지는 대 사막 지대의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고 남서부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극도로 건조하여 고대부터 사막의 아라비아라고 불려왔다³⁶⁾.

아라비아 지역의 복장은 지역에 따른 다양성이 있으나 옷들을 겹쳐 입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그림 5)



〈그림 4〉 노트르담 대성당 (1163년부터 2세기에 걸쳐 완공, <http://www.encyber.com/imagedata/88/55188.jpg>)

32) 고신천, "중세 기독교 복식에 관한 연구 -로마 Catholic 服飾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13.

33) Janson, Horst Woldemar, *미술의 역사*, 김윤수외역 (서울: 삼성출판사, 1985), p. 487.

34) 금속산화물을 녹여 붙이거나, 표면에 안료를 구워서 붙인 색판 유리조각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채색한 유리판으로 주로 유리창에 쓰인다.

35) Janson, Horst Woldemar, *Op. cit.*, p. 120.

36) Heather Colyer Ross, *The Art of Arabian Costume*, (Arabesque Commercial SA, 1981) pp. 13-14.

강한 태양,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체내 수분유지를 위해 옷을 겹쳐 입는 아라비아인의 복장은 태고적부터 관습이었다. 얼굴, 손, 발을 제외하고 거의 전신을 감싸는 형태의 그들의 복장은 열악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이었으며, 이슬람교도의 전통으로 정착되었다³⁷⁾.

아라비아 여성들의 복식은 전신을 감싼 것이지만 디자인은 외형상 우아하며 흐르는 듯하다. 거대하고 흐르는 듯한 디자인은 아라비아의 남성복에서도 나타난다. 구조면에서 보면 옷을 겹쳐 입는 것, 기본적으로 셔츠(body shirt)를 입는 것,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겹옷(outer mantel)의 형식이 같은 것 등은 남성복과 여성복이 공통점이지만 명백히 다른 점은 남성들은 무채색의 수수한 색상을, 여성들은 화려한 색상을 착용하였다³⁸⁾.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 나타난 의복에 관해 살펴보면 장식과 지참금, 그리고 베일에 관해 언급되는데 2장 187절에서 '그녀들은 너희들을 위한 의상이요

너희들은 그녀들을 위한 의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의복으로 남녀 평등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³⁹⁾.

또한 베일에 관한 것 중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것도 보여서는 아니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그녀의 아들, 남편의 형제, 그녀의 형제, 그녀 형제의 아들, 그녀 자매의 아들, 여성 무슬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 외의 어떤 사람 앞에서 그들이 가슴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⁴⁰⁾. 이는 가까운 인척 외에는 머리수건을 착용하여 여성들의 정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코란은 여성들의 외출 시 베일을 쓰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들로부터 여성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⁴¹⁾(그림 6)

이와 같이 코란은 이슬람교도 여성들에게 대중 앞에 나갈 때 얼굴과 몸을 덮을 것을 권하고 있으나 남성의 복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따라서 남성



〈그림 5〉 중세 아라비아인들
(<http://www.costumes.org/pages/medievalinks.htm>)



〈그림 6〉 이슬람교도
(<http://www.mymabloom.com/ogen.htm>)

37) *Ibid.*, pp. 15-16.

38) Heather Colyer Ross, *Op. cit.*, pp. 37-38.

39) 최영길, *쿠란 해설* (서울: 송산출판사, 1988), p. 45.

40) *Ibid.*, p. 626.

41) 박금주, "팔레스타인의 여성복식 고찰", *복식학회지*, 19호(1992), p. 198.

들은 전통복장에 터번이나 원통형의 모자를 쓰거나 원형의 캡을 쓰기도 한다.

이슬람교 복식은 고대로부터 문화적, 자연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감싸고 두르는 아라비아인의 복식 특성이 이슬람교의 종교적 행위체계에 흡수되어 은폐형 복식이 일반화되었다⁴²⁾.

이와 같이 이슬람교 복식은 각 문화구역마다의 지역적 조건 등과 결합하여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발전되었으며 문화와 자연환경에 의해 형성된 감싸고 두르는 아라비아인의 복식 특성이 이슬람교에 흡수되어 이슬람교도의 전통복식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그리스도교

종교에 있어서 의식의 필요성과 그 바탕은 근본적으로 종교의 주체인 인간이란 점에서 비롯된다. 즉, 정신적 요소와 이성적 요소로 구성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종교행위를 종교의식이라고 하고 카톨릭에서 이러한 의식을 전례의식이라고 한다⁴³⁾.

이러한 전례의식을 집행하는데 있어 성직자가 의식에 입하여 일반 신도들과 신과의 중재자로서 신에 대한 축사를 드리기 위해 교회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을 전례복이라 칭한다⁴⁴⁾.

전례복의 기원은 313년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으로부터 자유로이 종교활동을 하게 된 이래 전례⁴⁵⁾의 형식이 풍부하게 전개되면서부터이다.

평상복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의 상류사회 사람들이 입던 의복을 제단에서 사용하였고 이 의복이

전례의식에서 계속 사용되어지며 내려오는 동안 일반 평신도들은 차츰 입지 않게 되어, 전례복으로 바뀌어 전해지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와 함께 로마제국의 황궁 예식과 로마시대의 황제와 집정관, 고관들의 지위를 표시하던 관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⁴⁶⁾.

처음 성직자들은 단지 달마티카(dalmatica)와 팔리움(palium)⁴⁷⁾을 입고 팔에는 수대(maniple)⁴⁸⁾를 걸치고 바스킨(baskin)⁴⁹⁾을 신었다. 이 당시 주교들은 전례에 단정하고 깨끗한 차림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뿐이었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전례복은 다양해졌다.

6세기에 사제는 달마티카와 페누라(penula)⁵⁰⁾를 입었고 주교는 그 위에 팔리움을 걸쳤으며, 부제(deacon)⁵¹⁾는 달마티카를, 차부제(subdeacon)⁵²⁾는 튜닉만



〈그림 7〉 중세 그리스도교의 종교복 달마티카
(<http://www.odox.net/Liturgy-Western-Culture.htm>)

42) 권영실, "인도의 종교복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14.

43) 성바오로 출판사, 그리스도의 가르침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77) p. 12.

44) 고신철, *Op. cit.*, p. 66.

45) 전례란 모든 그리스도 신자와 온세계의 선을 위하여 교회가 교의 또는 관례에 따라 규정된 공적 장소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이다.

46) 이성은, "가톨릭 전례복의 문양, 색채를 도입한 현대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5.

47) 교황어깨에 두른 양털의 띠.

48) 미사제구의 하나로서 미사때 사제가 왼쪽 팔목에 거는 짧은 형질의 띠.

49) 종아리 길이의 부츠로 밑창이 높고 앞을 끈으로 엮어 올라간 것이 특징이다.

50) 두꺼운 모직이나 가죽으로 만든 외투, 판초의 형태이고 후드가 달기도 함.

51) 신학대학 5-6학년.

52) 신학대학 1-4학년.

을 입었다⁵³⁾. 8세기에는 갑바(cope)⁵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9세기 이후에는 중세 봉건사회 속에서 교황의 세력이 점점 강해져 여러 값비싼 장식품으로 위엄을 나타내었다. 10세기 이후에는 주교관(mitre)을 쓰기 시작했고 11세기부터는 주교용 장갑(pontifical glove)과 신발(liturgical shoes)이 착용되었으며 제의(chasuble)는 모든 성직자가 착용하기 시작하였다⁵⁵⁾. 12세기에 처음으로 색에 대한 전문(canon)이 규정되었고 각 전례복의 색이 전례색에 맞추어 강조되었고 레이스(lace)의 기교가 나오기 시작하여 장백의(albe), 중백의(suplis) 장식에 많이 사용되었다⁵⁶⁾. 전례복은 착용순서와 방법에 따라 개두포(amicl)⁵⁷⁾와 장백의, 띠, 중백의를 내의로 입었고 외의(外衣)로는 제의와 법의(dalmatica), 갑바(cope)와 수단(soutane)을 착용했으며 휘장으로 수대와 영대(stola), 팔리움, 그 외 부속물로서 모관과 장갑, 신발과 양말 등을 착용하였다.(그림 8)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를 기점으로 2천년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룬 전례복은 종류가 다양하고 독특한 유래를 지니고 있으나 그 전형적인 형태와 유형은 중세 카톨릭 복식 형태와 변함이 없이 전승되어 왔다.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례복의 변화는 부분적으로나 장식품들만의 변화가 있었을 뿐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서 볼 수 전례복의 기본유형과 원



류를 그대로 지니며 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세 종교복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조형성

중세 이미지의 패션은 지난 세기 동안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트렌드를 이룰 만큼 집단적으로 시도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서는

<표 1> 중세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종교복에 표현된 조형성

	이슬람교 종교복	그리스도교 종교복
실루엣	전신을 감싼 것이지만 디자인은 외형상 우아하며 흐르는 듯 함.	달마티카와 튜닉과 같은 형태의 실루엣
색상	남성 - 무채색의 수수한 색상 여성 - 여성미를 나타내는 화려한 색상	전문 규정에 따라 사용(흰색, 적색, 자색 등 의식에 맞는 색상의 의복 착용)
장식	정숙을 위해 터번, 모자 베일, 머릿수건 등을 착용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관, 장갑, 띠 등 여러 가지 장식품 사용
특징	감싸고 두르는 아라비아인의 복식 특성이 이슬람교에 흡수되어 은폐형 복식이 일반화되었음	개두포와 장백의, 띠, 중백의를 내의로 입었고 외의는 제의와 법의, 갑바와 수단을 착용했으며 휘장으로 수대와 영대, 팔리움, 그 외 부속물로서 모관과 장갑, 신발과 양말 등을 착용

53) Robert Lesage, *Vestment and Church Furniture*, (New York, 1970) pp. 40-42.

54) 반원형의 소매 없는 긴 옷으로 앞은 터져 있고 가운데 부분의 쇠단추로 죄어지게 입는 외투.

55) Jrer Josepha, Junpmann, *The Mass of the Romany Rite* (New York, 1959) pp. 189-190.

56) Robert Lesage, *Op. cit.*, pp. 41-42.

57) 전례복의 착용 순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착용하는 장방형의 천으로 어깨에 걸침.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중세 종교복 이미지의 복식도 이러한 예 중의 하나로 위엄 있고 성스러운 이미지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되었고 종교복의 형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양과 상징적 요소 등도 현대 패션에 많이 활용됨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패션을 전위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 그리고 신비적 이미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1. 전위적 이미지

전위는 기존의 가치체계와 전통 일반에 대한 부정의 정신이며, 이러한 정신으로부터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하며, 새로운 표현 방식의 시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극단적이며 실험적인 현대예술이다⁵⁸⁾.

복식에 있어서 전위는 부르주아의 위선적 도덕성과 산업사회의 규격화된 가치체계와 비인간화에 대한 반전통적인 반항적 스타일로 시작되어 변화하는 시대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복식 자체의 새로운 추구를 하는 혁신적인 스타일과 복식으로 사회적, 정치적, 미적 가치관을 표현하는 하위문화의 반항적

스타일로 발전하였다⁵⁹⁾. 즉 전위는 복식에서 이질적인 요소 및 경향간의 조합과 부분변형·파괴·재결합의 대담성, 전통적인 성과 인체미의 부정, 다양한 이문화와 반문화의 양식과 요소들의 결합 등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으며, 중세 종교복 이미지가 표현된 복식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전위적 이미지가 표현되었다⁶⁰⁾.

피에로(Pierrot)의 2002년 춘·하 작품인 <그림 9>는 상체는 머리까지 감싸는 길고 혈령한 실루엣과 노출된 하체가 어우러진 스타일로 개성적인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으며, 비치는 소재와 두꺼운 소재, 부드러운 소재와 거친 소재 등의 이질적인 소재를 조화시켜 전위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위적 측면에서의 소재는 기존의 틀에 박힌 소재상의 조화에서 탈피하여 부드러운 소재/거친 소재, 비치는 소재/두꺼운 소재, 고급 소재/저급 소재 등의 이질적인 소재들을 복식에 적용시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림 10>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2001년 추·동 작품으로 그리스도교의 종교복을 부분 변형시켜 일반 복식으로 전환시킨 형태와 군화와



<그림 9> Pierrot
(2002 F/W)



<그림 10> Yohji Yamamoto
(2001 F/W)

58) 노정심,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28.

59) 노정심, *Op. cit.*, p. 98.

60) *Ibid.*, pp. 99-100

흡사한 투박한 신발, 강렬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으로써 전위적인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다. 최근의 전위 복식은 의복의 도구적 기능이 표현적 기능으로 융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운동복, 종교복, 군복 등 특수한 기능성이나 상징성을 가진 복식의 형태가 그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미적 표현의 수단으로 전도되어 표현되고 있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2000년 추·동 작품인 <그림 11>은 혈령한 형태에 인체의 선이 드러나지 않는 의의와 인체의 선이 잘 표현되는 가죽으로 된 바지를 착용하여 이질적인 소재의 요소들이 결합한 무성적 디자인으로 전위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전위 복식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전통적인 성의 양분법을 부정하고 성의 혼돈과 성의 부재를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성 관념을 퇴화시켰다.

<그림 12>에 제시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2000년 춘·하 작품은 전신을 감싸고 베일을 두르는 형태의 이슬람교 종교복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이국적인 이미지와 민족적인 이미지의 병존으로 전위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의 전위 복식은 지금까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되었던 소수민족과 하위문화의 양식으로부터 어

떤 요소를 차용하여 그 원래의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 서구중심의 획일적인 미의식을 붕괴시켰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의 중세 종교복 이미지 중 전위적 이미지는 개성적인 에로티시즘과 이질적인 소재의 조화, 종교복식을 일반 복식으로 전환시킨 형태로 표현되고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전통적인 성의 양분법을 부정하는 무성적 디자인과 이국적인 이미지와 민족적인 이미지의 결합으로 전위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상징적 이미지

종교는 보이지 않는 신과의 관계 및 영혼의 차원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상징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특히, 성직자복은 종교적 의미 및 가치관을 가치적으로 나타내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에 많은 종교적 의미와 암시를 상징하고 있으며 신분, 품위, 제사의 거룩함과 성스러움, 종교집단 속에서 개인의 역할 및 지위 그리고 상황 등을 상징한다⁶¹⁾.

사제들이 전례의식을 집전하거나 기타 성무(聖務)를 행할 때 착용하는 계복 중 수단, 개두포, 장백의



<그림 11> Jean Paul Gaultier
(2000 F/W)



<그림 12> Alexander McQueen
(2000 S/S)

61) 김희선, "현재 우리나라 가톨릭 사제복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창간호(1993), p. 70.

띠, 제의, 법의, 영대 등에는 기독교의 종교적 이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고유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다⁶²⁾. 따라서 성직자로 하여금 그 옷을 착용할 때 종교적 이념을 되새기고 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샤넬(Chanel)의 2002년 춘·하 컬렉션 작품인 〈그림 13〉은 기본적인 튜닉과 같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성직자의 복식 중 장백의와 같은 상징적 이미지가 느껴진다. 미사, 장엄행렬, 거룩한 축성 때 착용했던 장백의는 튜닉(Tunica)라고 하며, 마음의 순결을 상징하고 새로운 생활을 의미한다.

〈그림 14〉에 제시된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의상은 그리스도교 전례복중 수단을 응용한 디자인의 예라 할 수 있다. 수단은 성직자가 전례시 제의 밑에 입거나 평상시 입는 복장으로 길이는 발목까지 오며 몸에 붙지 않고 헐렁하며 로만 칼라이고 단추가 많이 달려 있다. 수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세속에서는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림 15〉는 2002년 추·동 컬렉션에 발표한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Marc by Marc Jacobs)의 작품으로 튜닉형의 형태와 소매와 끝단에 선 장식이 초



〈그림 13〉 Chanel
(2002 S/S)



〈그림 14〉 Yohji Yamamoto
(2000 S/S)



〈그림 15〉 Marc by Marc Jacobs
(2002 F/W)

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착용한 달마티카를 연상케 한다.

달마티카는 직사각형을 반으로 접어서 양쪽 팔 밑을 직사각형으로 잘라내고 가운데 머리가 들어갈 부분을 -자나 T자, U자 또는 원형으로 파서 만들었고 어깨부터 아랫단까지, 그리고 소매 끝동에 클라

62) Ibid., p. 71.

비스(clavis)라는 선 장식을 하였다. 이 옷을 펴보면 십자가 형태를 이루고 있어 종교적 감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프리크(freak)⁶³⁾한 감각을 나타내는 <그림 16>은 2002년 춘·하 컬렉션에 선보인 아카디우스(Arkadius)의 작품으로 미사 집행시 사제가 목 뒤로 걸어서 몸 앞 양쪽에 길게 늘어뜨리는 영대(stola)를 착용하여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성직자가 미사나 성무를 집행할 때 입는 기본 복장인 영대는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좁고 긴 띠의 일종으로 양끝이 조금 넓으며 보통 양끝에 십자가를 수놓았던 영대는 성직자에게 부여된 직책과 의무를 상징한다.

이상과 같이 현대 패션에 표현된 중 상징적 이미지의 복식은 성직자들의 복식 중 상징 의미가 있는 복식들이 현대 패션에 표현되어 종교적 의미와 감각을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6> Arkadius
(2002 S/S)

3. 신비적 이미지

중세 시대의 고위 성직자나 귀족 계급 등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복식에는 신비스런 분위기의 장엄함과 화려함이 있었는데, 이런 의복의 실제 모습은 모자이크나 스테인드 글래스, 채색삽화 등에 남아있다. 이들 시각 자료에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성직자의 의복이며, 문헌에 따르면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의 복식과 매우 유사했다⁶⁴⁾고 한다.

중세의 신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술양식 기법은 모자이크와 스테인드 글래스였다. 돌이나 유리 조각을 꼼꼼하게 짜맞추어 놓은 모자이크는 풍부하고 심오한 색채를 발산하여 교회당 내부를 장엄하고 화려하게 꾸며주었다⁶⁵⁾. 또한 스테인드 글래스의 찬란하고 화려한 색채계가 색채에 빛을 개입시킴으로 속세에서의 초월적인 체험을 유도하고 신성과 정신성을 부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복에서도 화려한 색에 빛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다⁶⁶⁾.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빛나는 색채를 가진 것들은 아름답다고 말해진다'라고 언급했고 정신적인 것들의 아름다움을 정의하기 위해 빛과 동일시하였다⁶⁷⁾. 이와 같이 아름다움을 빛에 동일시하는 경향은 옷에 수많은 값비싼 보석들을 달아 반짝이게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튜닉 또는 달마티카의 타블리온(tablion)⁶⁸⁾은 물론 표면을 보석으로 장식하였으며, 화려한 실크에 금사와 준보석, 진주를 넣고 잔 직할 등이 응용되었다. 또한 은실로 놓은 자수와 세공한 금속, 보석들을 많이 사용함⁶⁹⁾으로써 풍부하고 신비스런 반짝임을 부여하여 더욱 중후하고 화려하며 사치스런 감각을 띠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도 중세의 수도승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파코라반느(Paco Rabanne)의 작품인 <그림 17>은 2001년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자인한 것으로 은빛 스팅글

63) 기형의 인간이나 동물, 변종, 긴가한 구경거리, 괴물, 괴짜 등과 같은 의미

64) J. A. Black and M.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Orbis, 1985) p. 45.

65) *Ibid.*, p. 31.

66) 김태연, "중세풍 복식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 44.

67) J. Huizinga, *중세의 가을*, 최홍숙 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p. 330.

68) 비잔틴 제국에서 팔루다멘툼에 달았던 네모난 형질 장식. 금, 은, 색실 등으로 새나 황제의 초상화 등을 수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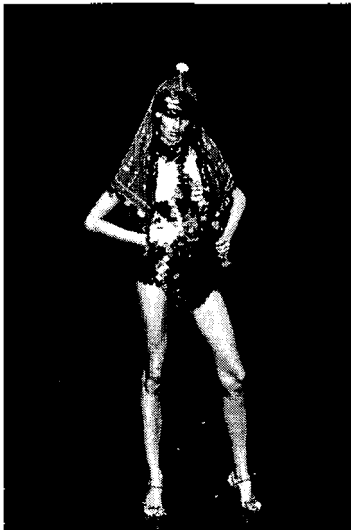
69) B. Payne, *복식의 역사* (서울: 까치, 1988), p.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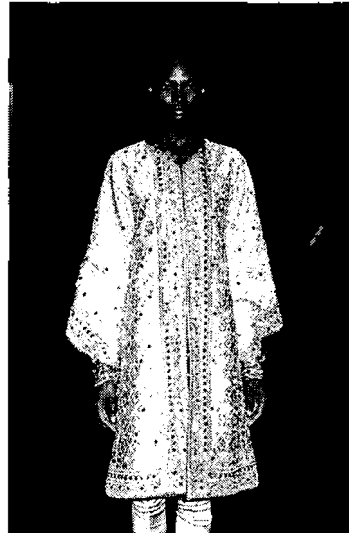
〈그림 17〉 Paco Rabanne
(2001 F/W)

로 만든 십자가 문양과 반짝임이 어울려 신비감을 돋보이게 한다.

〈그림 18〉에서 제시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의상은 은으로 만든 다양한 빛깔의 코인으로 풍부하고 심오한 색채를 발산하여 종교복에서 영감을 얻은 이국적이면서도 신비주의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중세 종교복에서의 소재는 화려



〈그림 18〉 Alexander McQueen
(2000 S/S)



〈그림 19〉 Gianfranco Ferré
(2001 F/W)

한 실크에 금사와 준보석, 진주 등을 넣고 짠 직물들이 애용되었다. 이같이 광택 있고 호화로운 직물은 평면적이고 화려한 의상에 사용되어 스테인드 글래스에서 표현되는 빛과 같이 신에 대한 신비감과 중후하고 화려한 감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이슬람교도의 복장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지시 화려한 실크 직물과 여러 색상을 발하는 보석들 안프란코 페레(Gianfranco Ferré)의 작품인 〈그림 19〉역의 풍부한 색채는 중세의 상징적인 빛을 표현하는 듯 하여 신비감을 나타내고 있다.

아카디우스(Arkadius)의 작품인 〈그림 20〉은 중세 종교예술의 대표양식인 스테인드 글래스와 영대의 결합을 창작의 모티브로 삼은 디자인으로 오묘한 색상이 신비로움과 성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모자이크와 스테인드 글래스의 화려하고 찬란한 색채와 빛의 개입으로 신성과 신비성이 부각되는 것처럼 복식에서도 화려한 색과 반짝이는 빛의 사용으로 신비성을 나타내려 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비적 이미지는 모자이크화와 스테인드 글래스 기법을 응용하여, 화려한 보석과 스팅글, 소재 등을 사용하여 풍부하고 심오한 빛과 색채로 복식의 신비감과 성스러움을 표현하며 이국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림 20〉 Arkadius
(2002 S/S)

현대 패션에 표현된 중세 종교복 이미지의 조형성을 요약·정리하면 〈표 2〉와 같다.

IV. 결 론

새 천년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등의 상황은 종교와 자연에 많은 관심을 들리게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 패션계에도 확산되어 중세에서 영감을 찾은 패션 작품으로 표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중세 이미지의 복식 중 종교복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파악하여 중세 문화와 중세 종교복을 이해하고 현대 패션의 흐름을 고찰하고 앞으로 진행될 패션 경향을 인

식하여 미래 복식사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중세 종교복 이미지를 살펴 보기 위해 전위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 그리고 신비적 이미지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위적 이미지는 개성적인 에로티시즘과 이질적인 소재의 조화, 종교복식을 일반 복식으로 전환시킨 형태로 표현되고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전통적인 성의 양분법을 부정하는 무성적 디자인과 이국적인 이미지와 민족적인 이미지의 결합으로 전위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상징적 이미지의 복식은 성직자들의 복식 중 상징 의미가 있는 복식들이 현대 패션에 표현되어 종교적 의미와 감각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 신비적 이미지는 모자이크화와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을 응용하여, 화려한 보석과 스팅글, 소재 등을 이용하여 풍부하고 심오한 빛과 색채로 복식의 신비감과 성스러움을 표현하며 이국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결과, 과거의 종교복은 성직자가 의식에 임하여 일반 신도들과 신과의 중재자로서 신에 대한 축사를 드리기 위해 착용하였으며 신도들은 신에 대한 경건을 표시하기 위해 착용하였다. 이러한 종교복은 현대 패션에 사용되어서 전위적 이미지와 종교적인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하였으며 이국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취향의 디자인으로 신비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추출해 볼 수 있었다.

〈표 2〉 현대 패션에 표현된 중세 종교복 이미지의 조형성

	표현 방법	외적 조형성
전위적 이미지	개성적인 에로티시즘과 이질적인 소재의 조화, 종교복식을 일반 복식으로 전환시킨 형태로 표현	무성적 디자인과 이국적인 이미지, 민족적인 이미지의 결합으로 전위적 이미지를 나타냄.
상징적 이미지	성직자들의 복식 중 장백의, 수단, 영대 등 상징 의미가 있는 복식들을 현대 패션에 표현	종교적 의미와 감각을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냄.
신비적 이미지	모자이크화와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을 응용. 화려한 보석과 스팅글, 소재 등을 사용하여 빛과 색채로 복식의 신비감과 성스러움을 표현	이국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디자인이 주류를 이룸

중세 종교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시대의 문화를 보는 관점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대 패션의 중세 종교복 이미지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복식디자인의 조형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하여 이론적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김진웅, 손영호, 정성화(1998), *서양사의 이해*, 학지사.
 민석홍, 라종일(1988), *서양문화사*, 서울대 출판부.
 박양운(1999),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가톨릭출판사.
 박형관, 최제우(1983), *세계문화사*, 학문사.
 성바로 출판사(1977),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바로 출판사.
 이정옥·최영옥·최경순(1994), *신교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임희완(1999), *서양사의 이해*, 박영사.
 조규호(1985), *세계문화사*, 박영사.
 차하순(1983), *서양사총론*, 탐구당.
 최영길(1988), *쿠란 해설*, 송산출판사.
 최운환(1982), *간주린 미사해설*, 가톨릭출판사.
 한국종교연구회(1991), *세계종교사입문*, 청년사.

2. 논문

- 고신천(1988). "중세 기독교 복식에 관한 연구 -로마 Catholic 服飾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실(1995). "인도의 종교복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량(2000). "장 폴 폴타에 영화의상에 나타난 양면가치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연(1996). "중세풍 복식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최현숙(1997). "가톨릭 전례복을 응용한 현대복식 디자인," *복식학회지* 34호.
 김희선(1993). "현재 우리나라 가톨릭 사제복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창간호.
 노정삼(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금주(1992). "팔레스타인의 여성복식 고찰," *복식학회지*, 19호.

손세희(1977). "가톨릭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은(1995). "가톨릭 전례복의 문양, 색채를 도입한 현대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옥(1994). "중세 서양 문장과 문장복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외국서적

- Black, J. A. and Garland, M.(1985), *A History of Fashion, Orbis*.
 Ross, Heather Colyer(1981), *The Art of Arabian Costume, Arabesque Commercial SA*.
 Josepha, Jrer and Junpmann(1959), *The Mass of the Romany Rite, New York*.
 Lesage, Robert(1970), *Vestment and Church Furniture, New York*.

4. 번역서적

- A. M. 렌 위크, 오만규 역(1979), *세계 그리스도교 교회사*, 보이스사.
 E. M. 번즈, R. 러너 and S. 미첨, 박상익 옮김(1994), *서양문명의 역사II*, 소나무.
 Huizinga, J., 최홍숙 역(1988), *중세의 가을*, 문학과 지성사.
 Gibb, H. A. R., 이희수 역(1997) *이슬람*, 주류성.
 Janson, Horst Woldemar, 김운수외역(1985), *미술의 역사*, 삼성출판사.
 Payne, B.(1988), *복식의 역사*, 까치.
 요트 마르크스, 김창수 역(1981), *카톨릭 교회사* (상), 카톨릭출판사.
 자크 르 고프, 유희수 역(1995), *서양 중세 문명*, 문학과 지성사.

5. 인터넷과 기타

- "미리 보는 서울 컬렉션", (2001년 4월 2일[2003년 3월 4일 검색]). Tex Herald Online; <http://www.fashion.com/News>
 "이슬람교 개론"(2003년 3월[2003년 3월 20일 검색]). <http://iresys.pc.kr/seven/belive/b018.htm>